

# 군산, 2040년 도시 장기발전방향 수립

###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승인받아 어제 최종 공고 최근 여건변화 반영한 압축·재생 방향으로 수립·계획인구는 26만4000명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5일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시·군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전략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며 시·군에서 수립, 도에서 승인한다.

군산시는 2021년 9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을 거쳐 지난 5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었다. 9월 1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10월 15일 승인내용을 최종 공고했다.

주요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공간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수립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제외한 667km<sup>2</sup>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인구는 종전 45만2천명

서 26만4,000명으로 설정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앞으로 개발 가능 물량인 시가화 예정 용지가 종전 61.5km<sup>2</sup>에서 4.3km<sup>2</sup>로 줄어든 반면 보전 용지는 292km<sup>2</sup>에서 320.2km<sup>2</sup>로 늘었다.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동지역) 5지역중심(산업단지,육구,대야,임피,고군산군도)에서 새만금과의 발전 축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기능을 부도심으로 강화한 1도심(동지역) 1부도심(산업단지) 4지역 중심(육구, 대야, 임피, 고군산군도) 체제로 개편하였다.

생활권계획은 기존의 4중(도심, 서부, 새만금, 동부) 4소(육구, 고군산군도, 대야, 임피) 생활권에서 새만금 등 현재 여건 및 미래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3중(도심, 혁신성장, 내륙정주) 6소(중앙, 남부, 산업단지, 고군산, 대야, 임피) 생활권으로 세부적 기능을 부여하였다.

부문별계획에서는 새만금 연계 도로망과 인접 시·군 연계를 위한 도로망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주거환경, 경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경

제·산업 등 각 부문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가 발전하여야 할 공간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면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개발·확장보다는 압축·재생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합리적 계획이 되도록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은 15일부터 30일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군산시 누리집(생활복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누구나 열람 및 자료제공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게재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홀로그램 홍보·기술 교류 '박차'

### 17~19일,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참여... 케이-확장현실관 운영·홀로그램 기술교류회 개최

홀로그램 선도도시 익산시가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에 참가해 기술 교류를 이끈다. 익산시는 오는 17~19일 3일간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전시관 '케이-확장현실관(K-XR관)'을 운영하고, 홀로그램 기술 교류회를 개최한다. K-XR관은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하나로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원광대학교와 구미전자기술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전시관에서는 홀로그램·확장현실(XR)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역 기업인 △홀로랩 △조이그림 △홀로스페이스 △정원컴퍼니 △아테크 넷 △레인보우핀토스 △스케이홀로를 비롯해 전국 홀로그램 유망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익산시가 추진하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과 확장현실(XR) 장치 개발 지원센터를 홍보한다. 기술 교류회는 홀로그램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된다. 국내외 홀로그램 사업화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기술 교류와 관계



망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2025년 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1일과 14일, 김임준 군산시장이 주재하고 국소장 및 관과장이 참석한 '2025년 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별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집중 점검과 논의를 했다. 특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 도시 조성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키움오피스 가족행복 구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 배분의 필요성도 논의

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세 징수 여건 악화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견고한 건전재정 기초를 바탕으로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익산 보석박물관 아트갤러리서... 12월 15일까지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2024 제20회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품을 선보인다. 보석박물관은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시상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상설전시관 내 아트갤러리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익산 귀금속·보석산업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관광지를 알리고 보석을 주제로 한 문화 상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실물 부문 36건(100점), 아이디어 부문 24건(24점) 등 총 60건(124점)이 접수됐다.

귀금속·보석 공예 분야 전문가 8명의 심사를 거쳐 49건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입상작은 실물 부문 30건(대상 1, 금상 2, 은상 2, 동상 4, 특선 10, 입선 11)과 아이디어 부문 19건(금상

1, 은상 1, 동상 2, 특선 5, 입선 10)이다. 대상은 이민기·한지연의 작품 '이 고위감(以古爲鑑)'이 선정돼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된다. 작품은 익산의 문화유산과 보석박물관의 건축물을 주제로 시계를 디자인했다. 과거와 현대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6일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와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특선·입선 부문별 대표 1명이 참석해 수상을 진행한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수상작품은 보석문화상품으로 개발돼 익산시와 보석박물관의 홍보상품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예술성과 상품성을 두루 갖춘 실용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중기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 총 4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 16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16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등학교 생 자녀로, 총 4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장학생 선발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http://www.gursan.go.kr)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454-43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청년·예비 창업가 지원 위해 '맞손'

### 군산시 청년플·어바웃커스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군산시 청년플 청년센터·창업센터(센터장 오원환)는 지난 14일 청년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바웃커스텀(대표 전재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바웃커스텀은 굿즈 제작 및 콘텐츠 제작 전문회사로 '유키월드', '꿈작공작' 등 자체 디자인 캐릭터 개발 및 캐릭터 기획·생산을 일괄로 진행하는 판매 유통망(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청년플들은 지역 청년의 삶 향상과 지역 창업가들의 창업 전주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미래의 유행을 파악하고,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중

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캐릭터 문화상품(굿즈) 및 그림말(이모티콘) 제작 교육 △지역 기반 현지 창작자(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원스탑 창업 상담 △판로개척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사업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캐릭터 콘텐츠 제작 및 문화 상품(굿즈) 구현을 위한 전문가 상담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연계 △2D 및 입체(3D) 캐릭터 팬 상품(굿즈) 제작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군산시 캐릭터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가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제28회 노인의 날

#### 기념행사 성황리 마무리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렸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료효친 사상 확산을 위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지회장 류창현)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초대 가수·단체와 시의원 4명의 후원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또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현을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류창현 지회장의 감사패 전달에 이어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30명에게 익산시장상과 국회의원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2명에게는 익산경찰서장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11곳의 모범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상 표창을 받았다. 류창현 지회장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익산시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익산시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연륜을 살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을 위해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어양동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 운영 등 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춘 정책을 발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